

순백(純白)의 꽃나무

김호준 박사 / 그린과학기술원 원장

추천
4

4. 이팝나무

(1) 계통과 자연분포

이팝나무는 피자식물강(被子植物綱, Angiospermae) 용담목(目, Gentianales) 몰푸레나무과(科, Oleaceae) 이팝나무속(屬, *Chionanthus*)의 낙엽활엽교목(落葉闊葉喬木)으로서 한국, 중국, 대만, 일본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이남의 영남, 호남과 그 도서지방 및 서해 인천에 이르기까지 분포하는데, 군산 어청도와 경북 포항에 집단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안의 산허리 아래에서 자라며, 제주도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종 긴잎이팝나무(*Chionanthus retusus* var. *coreana* Nak.)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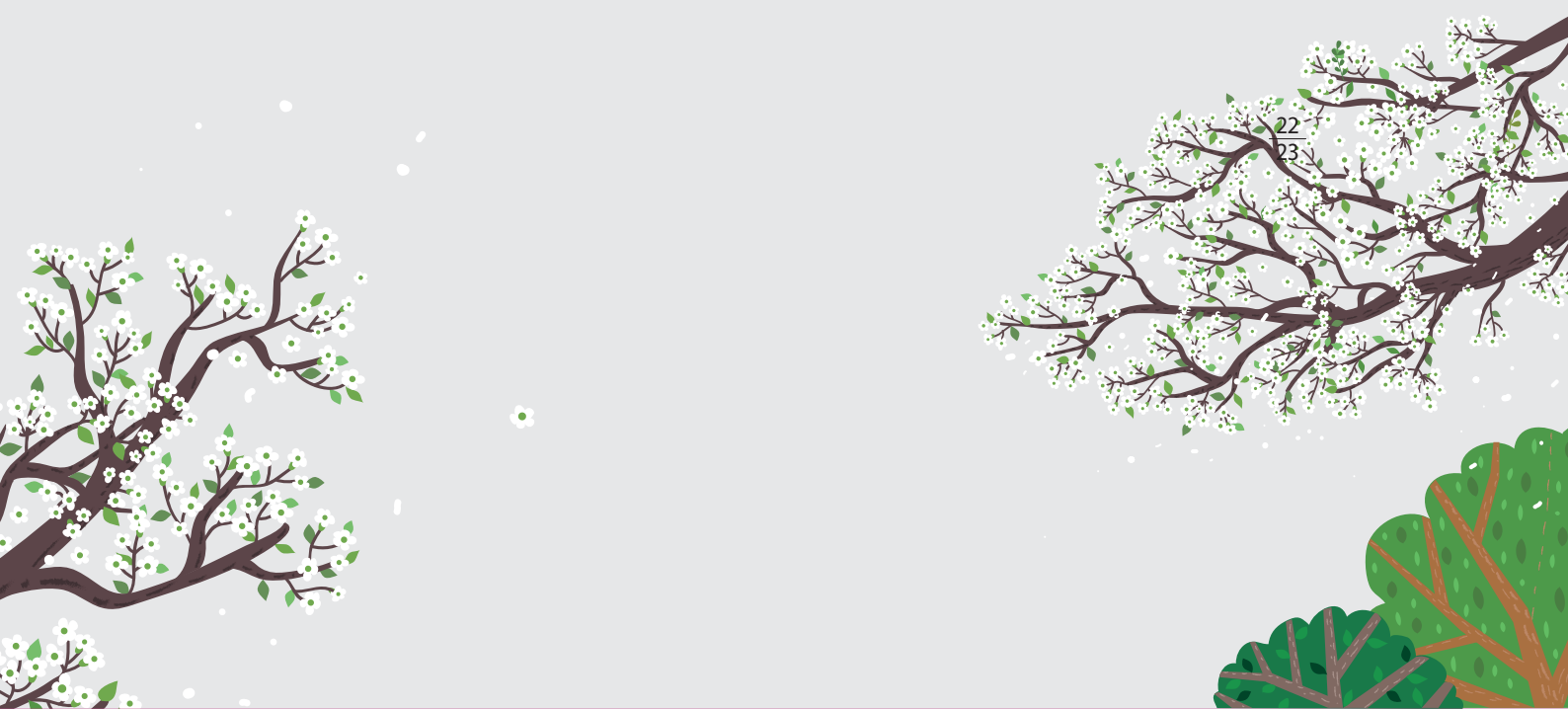
(2) 이름의 유래

① 이팝나무

- 학명 : *Chionanthus retusus* Lindley et Paxton
- 영명 : Chinese Fringe Tree
- 한명 : 六道木(육도목), 流蘇樹(유소수), 茶葉樹(다엽수)
- 국명 : 이팝나무, 이밥나무, 입하목(立夏木)

② 학명과 국명 - 하얀 눈꽃, 이밥나무, 입하목

이팝나무 학명 치오난투스(*Chionanthus*)는 「흰 눈」이라는 뜻의 'Chion'과 「꽃」이란 뜻의 'Antho'의 합성어로서 「하얀 눈꽃」이라는 의미다. 5~6월에 피는 흰 꽃은 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를 뒤덮어 마치 눈 내린 나무처럼 하얗다. 이 모습을 본 영국의 식물학자 Lindley와 Paxton이 「하얀 눈꽃」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영어 명에 Chinese가 붙은 것은 1800년대 영국의 무역국인 중국에서 이 나무를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새로 나온 이팝나무 어린잎은 따뜻한 물에 우려 차로 마실 수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다엽수(茶葉樹)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얗게 핀 탐스러운 꽃이 마치 그릇에 가득담은 쌀밥을 닮아 ‘이밥나무’라고 했다. 이밥나무는 「꽃이」 「꼬치」로 발음되듯 연음이 되어 「이밥」이 「이팝」으로 변했다고 한다. 쌀을 「입쌀」이라 부르고 쌀로 지은 밥을 「이밥」이라고 하니 일리 있는 말이다.

이팝나무의 또 다른 유래는 꽃이 5월 초순경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가 24절기 중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立夏)에 해당되어 「입하목」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현재도 전라북도 일부 지방에서는 이팝나무를 ‘입하목’이라 부른다고 한다.

문자 꽤나 쓰는 양반들이야 입하목이라 불렀겠지만, 평민들에겐 먹고픔과 그리움의 정서가 담긴 이밥나무가 더 와 닿았을 법하다. 흰색의 길쭉한 꽃잎은 쌀알을 닮았고 원추화서로 핀 꽃송이는 소복하게 담은 쌀밥과 같아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먹어보지 못하는 귀한 밥상이 연상됐을 것이다.

쌀을 닮은 이팝나무 꽃이 풍성하게 피는 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이팝나무는 물을 좋아하여 비가 잦은 해에는 꽃이 탐스럽게 핀다. 수리시설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의 논은 천수답(天水畓)이 많아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존했다. 모내기를 하는 봄에 비가 자주 내리면 당연히 논농사가 잘되었고, 잘 된 벼농사는 쌀밥 먹을 기회가 높아지는 것이다. 기대와 희망을 주는 이팝나무다.

■ 이팝나무 꽃



(3) 형태적 특징

① 수형, 줄기와 가지 - 원개형, 거친 수피

수고 20m 이상에 이르는 낙엽활엽교목으로서 줄기가 곧게 자라 분지하여 수관 상부가 다소 평평한 원형을 이루는 원개형(圓蓋形)의 수형이다. 수피는 흰빛이 도는 회흑색~회갈색이고 코르크(cork) 질이 발달한다. 수령이 높아짐에 따라 코르크질도 발달하여 다소 깊고 거칠게 거북등 모양(龜甲狀)으로 갈라진다. 어린 줄기와 굵은 가지의 수피는 흰 회색~황갈색이고 천 조각처럼 벗겨지면서 붙어있다.

당년 생 어린가지는 녹갈색이고 2년생 가지는 회황갈색인데, 어릴 때는 잔털이 약간 있으나 커가면서 없어진다. 원뿔형의 적갈색 겨울눈(冬芽)은 잔털이 있고 잎자루와 가지사이에 붙어있다.

■ 이팝나무 수피 변이(좌 : 어린줄기, 중 : 큰 나무 중간줄기, 우 : 큰 나무 밑줄기)



② 잎 - 마주나기

잎은 마주나기(對生)하며 길이 3~15cm, 폭 2~6cm로서 끝은 긴 타원형~도란형의 첨두~둔두이며, 밑 부분은 기부가 서서히 좁아지는 비대칭 등근꼴의 설저(楔底, cuneate, wedge shaped)다. 가장자리는 밋밋하나 어린나무에서는 복거치가 있다.

잎 표면의 주맥(중맥)에 털이 있고 뒷면의 주맥 밑 부분에는 연한 갈색 털이 있다. 잎자루는 길이 1.5~3cm이고 붉은빛이 도는데, 가지 쪽으로 가면서 짙어진다. 가을에는 황색계의 노란 단풍이 든다.

잎이 피침형이며 꽃잎의 폭이 1~1.5mm로 이팝나무보다 좁고 긴 것을 긴잎이팝나무(*Chionanthus retusus* var. *coreana* Nak.)라고 하며 제주도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꽃과 열매 - 원추화서, 핵과

암수딴그루(二家花, 雌雄異株, dioecism, dioecious)로서 5~6월에 하얀 꽃이 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 전체를 뒤덮는다. 꽃차례(花序, inflorescence)는 원추화서(圓錐花序, panicle)이고 길이 6~10cm이며, 새로 나온 가지 끝에 달린다.

개화는 20여 일간 지속되며, 수꽃은 2개의 수술만 있고 암꽃에는 1개의 암술과 2개의 수술이 있다. 꽃부리(花冠, corolla)는 4개의 꽃잎으로 갈라지며 길이 1~2cm, 폭 3mm로서 밑은 합쳐진다. 합쳐지는 통부의 길이는 꽃받침의 1~1.5배다. 꽃받침도 4개로 깊게 갈라지고 길이 2~3mm이며, 열편(裂片, calyx lobe)은 예첨두 피침형이다.

열매는 핵과(核果, drupe, 매실처럼 과육 안에 단단한 종자가 있는 열매)로서 길이 1~1.5cm의 타원형이며 9~10월에 녹색에서 짙은 보랏빛으로 익는다.

■ 이팝나무 성숙엽



■ 어린나무 잎 복거치, 붉은 잎자루, 겨울눈



■ 원추화서 이팝나무 꽃송이



■ 이팝나무 열매



(4) 생리·생태적 특성 - 적윤지

해변의 산기슭이나 계곡의 수분이 많은 곳에 자생하는데, 햇볕이 좋은 양지의 토심이 깊은 사질양토에서 생장이 좋다. 비옥한 곳에서는 생장이 양호하나 건조한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양수로 분류되나 약간의 음지에서도 생장이 좋고 내동성, 내염성, 병해충 등에 강한 편이다.

■ 표1. 생리·생태적 특성

내 한 성	강	내 염 성	강	전정 적응력	중
내 건 성	약	내공해성	강	이 식 력	강
내 음 성	약(양수)	맹 아 력	강	생장속도	초기생장 다소 늦음

(5) 번식과 유지관리

① 번식과 식재

종자는 2중 휴면을 하여 발아에 2년이 걸리므로 가을에 채취한 종자를 2년간 노천매장하였다가 파종한다. 초기생장은 느린 편이나 2~3년 경과하면 생장이 좋아지고 시비하여 기르면 7~8년 후에 개화한다.

남부지방에서 자생하는 수목이나 이식이 잘 되는 편이어서 경기지역의 중부 내륙에서도 가로수, 공원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다.

② 유지관리

이팝나무 관리는 무난한 편인데, 전정을 싫어하므로 자연수형 그대로 가꾸는 것이 좋다. 시비는 표2.에서처럼 부산물비료와 유기질 비료는 10월 하순~11월(가을~월동기) 뿌리권에 구덩이를 파고 시비하고, 화학비료는 생육기의 4~7월에 구멍을 뚫고 고품복합비료를 시비한다.

병해충 피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깍지벌레류, 이식목이나 쇠약목에서의 목질부 천공성 해충 나무좀류, 잎을 가해하는 미국흰불나방 피해가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방제는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고 발생 초기에 해당 방제약을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표2. 유지관리

전 정	■ 필요 시 : 손상지, 병해충 피해지 등	적 합 지	■ 사질양토 ■ 적습지, 적윤지
시 비	■ 부산물 · 유기질 비료 : 가을~월동기 (10월 하순~11월) ■ 화학비료 : 생육기(4~7월)	병 해 충	■ 나무좀류(이식목, 쇠약목) ■ 미국흰불나방 ■ 깍지벌레류

③ 미국흰불나방 관리

○ **학명** : *Hyphantria cunea* (Drury)

○ **피해수종** : 이팝나무, 물푸레나무, 양버즘나무, 벚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감나무 등의 유실수를 비롯한 거의 모든 활엽수를 가해한다.

○ **피해양상** : 통상 제1화기보다는 8월경에 시작되는 제2화기의 피해가 더 크다. 어린유충이 실을 토하여 잎을 감아 집을 만들고 그 속에 무리지어 살면서 엽육을 갉아먹는다. 피해엽은 그물망처럼 보이고 수관 내부보다는 바깥쪽과 상부에 더 많이 발생한다.

○ **형태 및 생태** : 암컷 성충의 몸길이는 13mm, 수컷은 9.0mm 내외다. 몸과 날개는 백색인데, 제1화기 성충은 날개에 흑색 반점이 흩어져있다. 알은 0.5mm 정도의 구형이며 무더기로 산란된 알 표면에는 암컷의 털과 비늘조각(鱗片, scale)으로 덮여있다. 유충은 체색변이가 많다. 노숙유충은 30mm에 이르고 흑색과 백색의 긴 센털(剛毛, setae)이 몸을 덮고 있다.

연 2회 발생하며 번데기로 월동한다. 제1화기 성충은 5월 중순~6월, 제2화기 성충은 7월 하순~8월 중순에 출현한다. 일일 최대 우화시각은 오후 6~7시 사이고 짝짓기 한 암컷은 잎 뒷면에 600~700개의 알을 무더기로 낳는다. 유충기간은 약 50일이고 제5령기부터는 나무 전체에 흩어져 가해한다. 노숙유충은 번데기가 될 장소를 찾아 기어 다니다가 나무껍질, 지피물 등에 몸을 숨겨 고치를 짓는다.

■ 미국흰불나방 피해엽



■ 미국흰불나방 유충



○ **방제** : 산란된 잎을 채취, 소각하거나 발생초기 무리지어 가해하는 가지를 잘라 소각한다. 5월 상순~9월 중순 성충 활동기에 유아등을 설치하여 유인된 성충을 유살한다. 8월 하순에 짚, 가마니 등으로 줄기에 잠복소를 설치하여 유인하고 이듬해 늦은 봄 월동하는 번데기를 유살한다.

5월 하순~10월 하순 사이에 미국흰불나방약 델타메트린(데시스), 디플루벤주론(디밀린, 초심), 램다사이알로트린(주령), 에스펜발러레이트(적시타), 기타 흰불나방약을 2~3회 살포한다.

(6) 조경소재로서의 이용

울긋불긋 산철쭉과 영산홍의 봄 잔치가 끝나면 한동안 꽃이 없어 서운한데, 이 시기를 메우는 것이 바로 이팝나무다. 이팝나무 꽃은 은은한 향기가 있어 넓은 들의 정원수, 공원수, 가로수, 골프장 조경수로의 가치가 높은 나무다.

수고가 높은 이팝나무는 열식에 어울려 가로수에 적합하고 공원이나 골프장 조경에도 어울린다. 거목으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단목으로 식재해도 좋다.

■ 골프코스 티 그라운드 전방에 열식된 이팝나무(서라벌C.C.)



■ 건물주변 열식된 이팝나무(안양 동편마을)



■ 5월 중순 영동고속도로 문막 휴게소 녹지대 이팝나무



김호준 박사
그린과학기술원 원장